

## 재음절화에 의한 장모음화 연구<sup>1)</sup>

이 범 진

(원광대학교)

Lee, Bum-Jin. (2005). A study on vowel lengthening with resyllabification in Old English. *English language & English Teaching*, 11(1), 137-15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vowel lengthening triggered by resyllabification. In general, short vowels become long when a following consonant is deleted, as shown in *stehli* 'steel' > *stēli* and *\*fimt* 'five' > *fīve*. We can account for the phenomenon in a straightforward way within the framework of CV phonology (Clements & Keyser, 1983) : deletion of a coda consonant C slot and then the preceding vowel spreads onto it, resulting in a long vowel. The analysis, however, cannot hold for words like *ealhes* 'temple', where deletion of an onset segment eventually triggers vowel lengthening in the preceding syllable. In order to account for this, I propose resyllabification. That is, *ealhes* first becomes *eales* by /h/-deletion. Next, the /l/ in coda is resyllabified as the onset of the following syllable, leaving its C slot unoccupied. Finally, the vowel spreads onto the empty slot, producing a long vowel.

[vowel lengthening/resyllabification/deletion/spread, 장모음화/재음절화/탈락/확산]

### I. 서론

언어의 발달 과정에서 음 변화에 대한 연구는 역사적인 방법과 공시적인 방법이

---

\* 본 논문은 2004년도 원광대학교 학술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있다. 고대영어의 경우 공시적인 연구는 SPE에 입각한 Lass와 Anderson(1975)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SPE이후 음운이론이 많이 발전하였지만 근래의 음운이론에 의한 고대영어의 공시적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고대영어의 장음(long segment)의 발생과 관련된 음 변화를 조사하여 근래의 음운이론으로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본고는 고대영어시기에 영어발달과정에서 볼 수 있는 모음의 장음화(lengthening)와 관련된 음 변화 중 재음절화 하여 장음화되는 경우를 CV 음운론(CV phonology)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모음이 장음화되는 경우는 음절 말 자음이 탈락하여 그 빈자리가 인접한 모음이 차지하여 장음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루는 예는 고대 영어에서 재음절화 과정을 거쳐야 장음화되는 현상을 Clements와 Keyser(1983)의 CV음운론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II. 선형 이론의 문제점

Chomsky와 Halle(1968)는 장음을 [+long]이라는 자질을 사용하여 나타내고, SPE 이론에 입각하여 고대영어 음운론을 다룬 Lass와 Anderson(1975)은 장음을 동일한 분절음(segment)의 연쇄로 나타낸다. 선형이론의 이러한 두 가지 장음표시 방법은 모두 장음이 지니는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먼저, 장음을 [+long]이라는 자질을 지닌 단음(single segment)으로 표시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Goldsmith(1990, p. 76-77)가 말하는 장자음(long consonant)의 특성 하나를 제시하면 아래 (1)과 같다.

- (1) Rules that are sensitive to syllable weight, or that establish syllable weight, treat geminate consonants as if they were two consonants. Thus, in a language in which a CVC syllable counts as a heavy syllable, and syllable boundaries occur between consonants when two consonants appear together, we always find that, in a sequence like [bigga], the first syllable is treated as a heavy syllable...In this respect, geminate consonants act like sequences of consonants rather than, say, a single consonant marked [+long].

위 (1)에 의하면, 장자음은 앞 음절의 말음(coda) 위치와 다음 음절의 두음(onset) 위치에 나타나므로 마치 두 개의 자음과 동일한 성질을 지닌다. 음절구조를 음절경계(syllable boundary)를 삽입하는 규칙에 의해 파악하는 선형이론은 장음을 [+long]

이라는 자질명시를 지닌 단음으로 표시할 경우, 장자음이 지니는 이러한 특성을 나타낼 수 없다.<sup>1)</sup>

장자음이 CC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모음이 동일한 자질을 지닌 두 모음의 연쇄 VV로 표시되어야 하는 경우의 예로, Hayes(1986a, p. 325)가 제시하는 Hausa어의 단음화(shortening)현상과 관련된 (2)와 같은 현상을 들 수 있다.

- (2) a. *da:-n-ka*           → *danka* ‘your son’  
          son-of-2m.sg.
- b. *kai-n-ka*           → *kanka* ‘your(m.sg.) head’  
          head-of-2m.sg.
- c. *kyau-n-fuska*      → *kyanfуска* ‘beauty of face’  
          beauty-of-face

Hausa어에는 장모음이나 이중모음(diphthong)이 폐쇄음절(closed syllable)에 나타날 수 없다는 음절구조조건(syllable structure condition)이 있다. (2)에서 볼 수 있듯이, 형태소(morpheme)의 결합에 의해 이 음절구조조건에 위배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장모음은 단음화되고 이중모음의 두 번째 요소는 탈락한다.

장모음을 [+long]이라는 자질을 지닌 단음으로 표시하는 선형이론은 위에서 언급한 Hausa어의 음절구조조건을 아래 (3)처럼 두 가지로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 (3) a. \* $\left[ \begin{array}{c} V \\ [+long] \end{array} \right] C\$$
- b. \*-VVCS

그러나 장모음을 동일한 두 모음의 연쇄 VV로 나타낸다면, Hausa어 음절구조조건 (3)을 아래처럼 간단히 하나로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이다.

1) Hyman(1975, p. 191)은 자음의 양음절성(ambisyllabicity)을 나타내기 위해, 음절경계를 분절음 사이가 아니라 ‘분절음 내’에 삽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아래와 같은 방식에 의해 음절을 나눈다.

\$                            \$  
[bekən] ‘beckon’, [bedrum] ‘bedroom’

그러나 선형이론은 음절을 ‘분절음의 연쇄’로 파악하므로 음절경계를 ‘분절음 내’에 삽입한다는 것은 모순이며, 장자음을 [+long]이라는 자질을 지닌 자음으로 나타내는 선형이론은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1)에 제시한 장자음의 특성을 나타내기란 불가능하다.

## (4) \*-VVCS\$

또한, 폐쇄음절에 나타나는 경우 장모음은 단음화되고 이중모음의 두 번째 요소는 탈락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장모음을 [+long]이라는 자질을 지닌 단음으로 표시하는 선형이론은 아래와 같은 서로 별개의 두 규칙이 필요하다.

- (5) a.  $V \rightarrow [-long] / \text{_____} C\$$   
 b.  $V \rightarrow \emptyset / V \text{_____} C\$$

규칙 (5a)는 (2a)의 예와 (5b)는 (2b, c)의 예와 각기 관련이 있다. 그러나 장모음을 동일한 두 모음의 연쇄 VV로 나타낼 경우, (5)의 두 규칙을 아래처럼 하나로 나타낼 수 있다.

(6)  $V \rightarrow \emptyset / V \text{_____} C\$$ 

이처럼 장모음을 [+long]이라는 자질로 표시하면, 음절구조조건을 간단히 나타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조건을 위배하지 않기 위해 발생하는 음운현상을 보다 간결히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니게 된다.

다음으로, 선형이론의 두 번째 장음표시 방법 즉, 장음을 동일한 두 분절음의 연쇄로 표시하는 방식이 지니는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자음이든 모음이든 장음을 [+long]이라는 자질을 지닌 단음으로 표시할 경우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장음을 동일한 두 분절음의 연쇄로 표시해야 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장음을 이렇게 나타내더라도 역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한다.

Goldsmith(1990, p. 77-80)에 따르면, 장자음은 (1)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여러 특성을 지닌다.

- (7) a. Geminate consonants frequently are allowed in positions where sequences of different consonants are not allowed....A language may disallow sequences of distinct obstruents, but allow a geminate consonant. In this respect, geminate consonants do not seem to behave like sequences of consonants; somehow, it is as if their first half were *not* there.  
 b. These rules [of epenthesis] generally fail to apply if their application would separate the halves of a geminate consonant. This characteristic has been said to reflect the *integrity* of geminate consonants, and suggests yet another way in which geminate

consonants do not act like normal sequences of consonants.  
 c. Rules that modify the segmental quality of consonants frequently fail to apply to geminates.

장자음의 이러한 특성들은 장자음을 CC로 나타내는 선형이론에 의해서는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다. (1)에서 언급된 장자음의 특성은 (7)에서 언급된 특성들과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이러한 장자음의 특성을 선형이론의 장자음 표시 방법 중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설명할 수 없다. 자립분절음운론에서는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장자음의 이러한 특성들이 설명 가능하다.

Hayes(1986a, p. 325)에 따르면, 장모음을 VV로 나타낼 때, 리투아니아어(Lithuanian)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 언어에서 모음 /e/와 /e:/는 모음 /u/나 전이음(glide) /w/ 앞에서 각기 /o/와 /o:/로 후설모음화(backing)된다. Hayes(1986a, p. 325)는 이 현상과 관련된 규칙을 아래와 같이 나타낸다.

(8) Lithuanian Backing

$$\left[ \begin{array}{c} -\text{cons} \\ -\text{high} \end{array} \right] \rightarrow [+back] / \text{---} \left[ \begin{array}{c} -\text{cons} \\ +\text{back} \\ +\text{high} \end{array} \right]$$

장모음을 VV로 나타내는 선형이론에서는 예를 들어 /e:u/가 /eeu/로 해석되므로, 여기에 규칙 (8)이 적용되면 [o:u]가 아니라 옳지 않은 형태인 \*[eou]가 도출된다는 문제점이 발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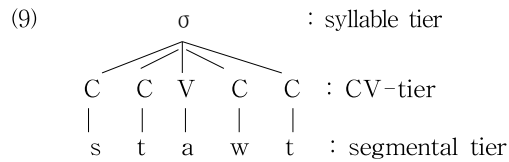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장음이 어떤 경우에는 동일한 두 분절음의 연쇄로 표시되어야 하고, 다른 경우에는 [+long]이라는 자질을 지닌 단음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복잡한 특성을 지닌다. 선형이론은 어떠한 방식으로 장음을 표시하더라도 장음이 지니는 이러한 특성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본고는 고대영어의 장음에 관한 연구를 위해 선형이론을 사용하지 않고 CV-음운론을 사용한다.

1. 자립분절음운론의 장음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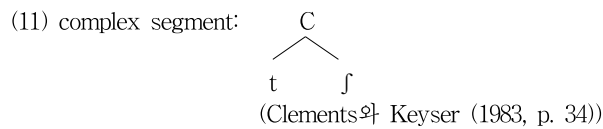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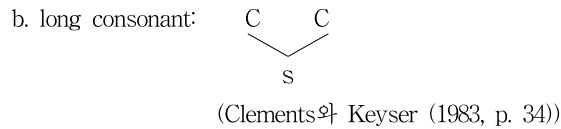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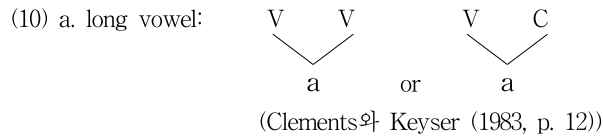
Kahn(1976)은 Goldsmith(1976)의 자립분절음운론을 음절이론에 적용시켜, 음절을 음절층(syllable tier)과 분절음층(segmental tier)의 두 층으로 나타낸다. 그 이후 이 두 층 사이의 중간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에 따라 여러 다른 음절이론이 발전되어 왔다. Clements와 Keyser(1983)는 이 두 층 사이에 CV-층(CV tier)을 도입하였고, Steriade(1982)와 Mohanan(1985)은 음운규칙의 적용영역 등을 근거로 이 세 층 외

에도 두음-운모층(onset-rhyme tier)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Levin(1985)은 골격층(skeletal tier)의 요소를 [syllabic]이라는 자질이 명시되지 않은 순수한 박자단위(timing tier)인 X로 나타낸다. 자립분절음운론에 입각하여 음절을 다루는 여러 이론 중 어떤 것을 사용하더라도, 고대영어의 장음을 다루는 데는 별 차이가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대표적으로 Clements와 Keyser(1983)의 CV-음운론을 사용한다.

Clements와 Keyser(1983, p. 18)는 예를 들어 *stout*의 음절구조를 아래 (9)처럼 세 층으로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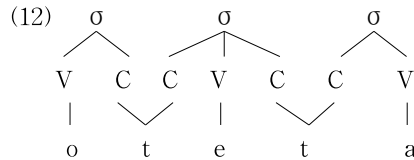
음절구조를 (9)처럼 세 층으로 표시하면, 아래 (10)처럼 하나의 분절음이 CV-층의 두 요소와 연결되거나, (11)처럼 두 개의 분절음이 CV-층의 하나의 요소와 연결되는 것이 가능하다.



(10)과 같은 구조는 장음을 나타내고, (11)과 같은 구조는 폐찰음(affricate)이나 전부비음화자음(prenasalized consonant)과 같은 복합분절음(complex segment)을 나타낸다. Clements와 Keyser(1983, p. 12)에 따르면, 장모음이 (10a)의 두 형태 중

어떻게 표시되어야 하는가는 언어 고유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영어의 경우, 장모음은 모음이 CV-층의 VV가 아니라 VC와 연결되어 표시된다(Clements와 Keyser, 1983, p. 32). CV-음운론에서는 이와 같이 CV-층과 분절음층 사이의 관계가 반드시 1:1일 필요가 없다. (10)에서처럼 2:1이거나 (11)에서처럼 1:2일 수도 있다.

본고의 논의와 관련하여 CV-음운론이 가져다준 또 하나의 중요한 결과는 CV-층에는 분절음층의 어떤 요소와도 연결되지 않은 빈자리(empty slot)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분절음의 탈락과 같은 규칙이 CV-층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지 분절음층에만 적용된다는 자립분절음운론의 특성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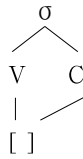
(12)에서 볼 수 있듯이 /t/는 CV-층의 CC와 연결되어 있어 마치 두 개의 자음처럼 행동한다. CC의 왼쪽 C는 앞 음절의 말음위치에 있어 앞 음절은 중음절(heavy syllable)이 되고, 오른쪽 C는 다음 음절의 두음위치에 있다. 이처럼, 장음 (10)처럼 나타내면, 장자음이 지니는 첫 번째 특성 (1)을 잘 나타낼 수 있게 된다.

## 2. 보상장음화 규칙

전통생성음운론에서는 보상장음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근래 자립분절음운론에서는 보상장음화가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Steriade, 1982; Clements & Keyser, 1983; Clements, 1982; Wetzels & Sezer, 1986 등). Clements(1982)는 선형이론에 입각하여 보상장음화를 자음의 약화(weakening)와 단모음화(monophthongization)라는 두 현상의 결합이라고 주장하는 De Chene와 Anderson(1979)과 울격음운론에 입각하여 공교점규약(empty node convention)에 의해 보상장음화를 분석하는 Ingria(1980)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CV-음운론이 보상장음화의 여러 예들을 잘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립분절음운론이 보상장음화를 잘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은, 분절음의 탈락이 CV-층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지 분절음층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자립분절음운론이 선형이론보다 장음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자립분절음운론의 구조적 특징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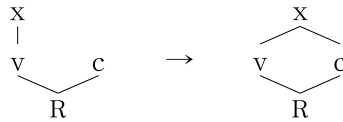
Clements와 Keyser(1983, p. 77)는 보상장음화에 관하여 “The phenomenon of compensatory lengthening is a consequence of spreading.”이라고 말한다. 보상장음화를 이처럼 전파에 의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Wetzels(1986, p. 321)이 제시하는 아래와 같은 보상장음화규칙이 필요하다.

(13) *Compensatory Lengthening*



(13)은 모음 바로 뒤에 오는 자음의 탈락으로 생긴 빈자리 C에 V와 연결되어 있는 분절음을 연결시키는 규칙이다. Steriade(1982, p. 113)와 Haas(1988, p. 241)는 보상장음화 규칙을 각기 아래 (14a) 및 (14b)처럼 표시한다.

(14) a. An Empty C slot in the rime is associated with the segment in nuclear position. Formal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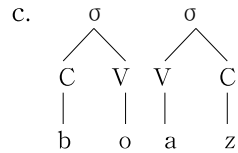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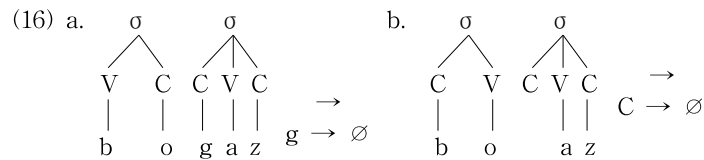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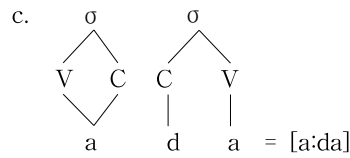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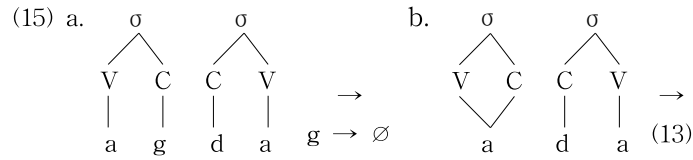
b. Compensatory Lengthening :  $\begin{array}{c} V \quad C \\ | \quad / \\ [ \quad ] \end{array}$

(14a)는 (13)과 사실상 동일한 규칙이다. 이 두 규칙의 표기상의 차이는 Steriade(1982)가 Clements와 Keyser(1983)와는 달리 음절구조에 두음-운모층을 도입하기 때문이다. (14a)는 보상장음화가 발생하는 영역(domain)이 운모(rhyme)임을 나타낸다. (14b)에서는 (13)이나 (14a)에서와 달리 보상장음화규칙이 CV-층과 분절음층의 두 층으로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칙은 음절말의 자음뿐 아니라 음절초의 자음이 탈락하더라도 보상장음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Hayes(1989, p. 281)의 “Although CL [compensatory lengthening] from loss of coda consonants is very common, its opposite, CL from loss of onset consona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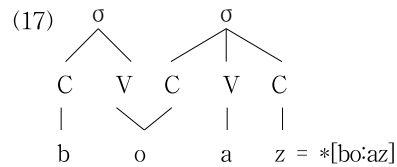
appears not to occur.”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두 모음사이의 자음이 탈락하고 그 앞의 모음이 장음화되는 경우 (VCV > V)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가 가능한 보상장음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보상장음화규칙이 (13)이나 (14a)처럼 표시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Clements와 Keyser(1983)의 CV-음운론을 사용하므로, Wetzels(1986, p. 321)의 보상장음화규칙 (13)을 채택한다.

규칙 (13)에 의해 보상장음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편의상 Sezer(1986, p. 245-46)가 제시하는 터키어(Turkish)의 예 agda > a:da ‘gummy syrup’와 bogaz > boaz ‘throat’의 도출과정을 나타내면 각기 아래 (15) 및 (16)과 같다.



(15)는 모음에 후속하는 음절말 자음의 탈락에 의한 전형적인 보상장음화의 도출

과정이다. (15a)에서 g가 탈락하면 (15b)에는 빈자리 C가 남게 된다. 보상장음화규칙 (13)에 의해 이 빈자리 C가 앞에 있는 모음 a와 연결되면, 장모음을 지닌 형태 (15c)가 도출된다. (16)은 두 모음 사이의 자음, 즉 음절초 자음의 탈락은 보상장음화를 유발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16a)에 g-탈락규칙이 적용되면 (16b)에는 빈자리 C가 남게 된다. 이 빈자리 C는 (15b)에서와는 달리 음절말이 아니고 음절초에 놓여 있으므로, 보상장음화규칙 (13)에 의해 모음 o와 연결될 수 없으므로 결국 미아삭제(stray erasure)에 의해 탈락된다. 이렇게 되면 장모음을 지니지 않은 표면형 (16c)가 도출된다. 만일 (16b)에 규칙 (14b)를 적용시키면 장모음을 지닌 아래 (17)와 같은 비적형 표면형이 도출된다. 따라서 보상장음화규칙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3)처럼 표시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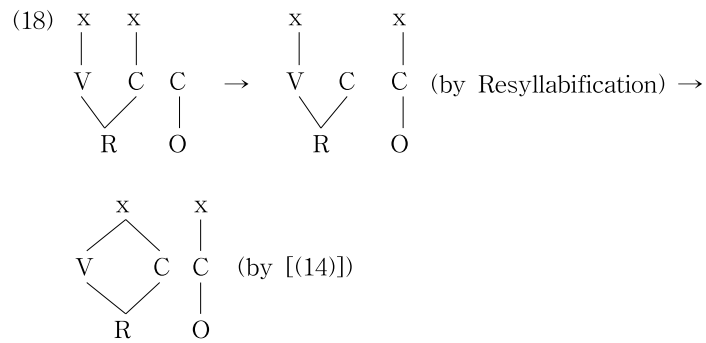
지금까지 CV-음운론의 보상장음화규칙을 소개하고, 음절말의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와 음절초의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의 두 가지 예를 들어 이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언급하였다.

### III. 음절초 자음의 탈락과 재음절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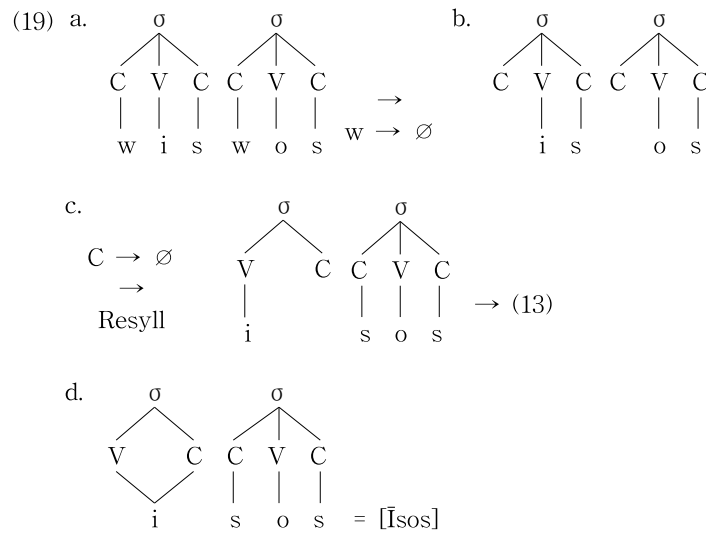
모음장음화가 음절말 자음의 탈락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Steriade (1982)에 따르면, 재음절화가 보상장음화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sup>2)</sup> Steriade(1982, p. 114)는 재음절화에 의한 보상장음화의 도출과정을 (18)처럼 나타낸다.

2) Steriade(1982, p. 113)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CL [Compensatory Lengthening] results from the resyllabification of a segment from syllable final position to the syllable initial position of an onsetless syllable.



Steriade(1982, p. 126-27)는 희랍어 *wiswos* > *īsos* 'equal'을 예로 들어 다음과 같은 도출과정에 의해 설명한다.<sup>3)</sup>



(19a)에 다음의 w-탈락규칙이 적용되면 두 개의 빈자리 C를 지닌 (19b)가 도출

3) 본고에서는 Clements와 Keyser(1983)의 CV-음운론을 사용하여 왔으므로, 편의상 (19)에서는 Steriade (1982)의 도출과정을 Clements와 Keyser(1983)의 방식으로 바꾸어 나타낸다.

된다.<sup>4)</sup> 첫음절의 빈자리는 어떤 규칙에 의해서도 채워질 수 없으므로 미아삭제에 의해 삭제된다. 두 번째 음절의 빈자리는 아래 (20)의 재음절화 규칙에 의해 첫음절의 발음 위치에 있는 s와 연결되고, 본래 s와 연결되어 있던 C는 빈자리가 된다. 재음절화규칙에 의해 생긴 (19c)의 빈자리는 CV-음운론의 보상장음화규칙 (13)에 의해 앞에 있는 모음 i와 연결되어 결국 장모음을 지닌 표면형 (19d)가 도출된다. 이처럼 재음절화는 보상장음화규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음절말에 빈자리를 남기는 결과를 가져온다.

Steriade(1982, p. 127)가 제시하는 재음절화규칙을 편의상 Clements와 Keyser (1983)의 CV-음운론으로 나타내면 아래 (20)와 같다.

(20) Resyllabification

$$\begin{array}{ccc}
 \begin{array}{c} \sigma \\ | \\ C \\ | \\ x \end{array} & \begin{array}{c} \sigma \\ | \\ C \end{array} & \rightarrow & \begin{array}{c} \sigma \\ | \\ C \end{array} & \begin{array}{c} \sigma \\ | \\ C \\ | \\ x \end{array}
 \end{array}$$

(20)은 음절초 자음의 탈락으로 생긴 빈자리를 앞에 있는 음절의 음절말 분절음과 연결시키고, 본래 이 분절음과 연결되어 있던 음절말의 C를 빈자리로 만드는 일종의 연결선재조정(reassociation) 규칙이다. 이 규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20)의 구조기술에서 볼 수 있듯이 반드시 음절초에 빈자리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재음절화가 보상장음화를 유발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재음절화규칙을 CV-음운론에 의해 제시하였다. 이제 고대영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재음절화에 의한 보상장음화와 관련된 예들을 제시하고 이 예들을 CV-음운론에 의해 분석한다. 재음절화화에 의한 보상장음화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음절초의 자음이 탈락하여 이 자리에 빈자리가 있어야 한다. 음절초의 자음탈락과 관련된 고대영어의 예로는 w-탈락과 h-탈락을 들 수 있다. 먼저 w-탈락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1) betwuh > betuh 'between'

4) Steriade(1982, p. 119)는 다음의 w-탈락규칙을 아래와 같이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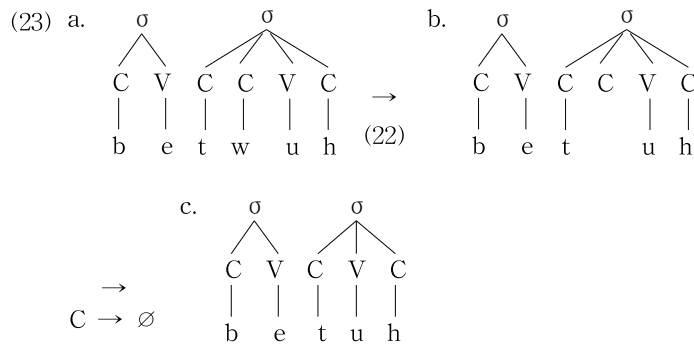
$$\begin{array}{c} w \\ | \\ C \end{array} \rightarrow \begin{array}{c} \emptyset \\ | \\ C \end{array} \quad / \text{in the Onset}$$

cwucu	>	cucu	'alive'
cwudu	>	cudu	'cud'
*scadwu	>	sceadu	'shade'
swugian	>	sugian	'be silent'
swutol	>	sutol	'clear'
twuwa	>	tuwa	'twice'
wuton	>	uton	'let us'

(21)과 관련된 고대영어의 w-탈락규칙을 나타내면 (22)와 같다.

$$(22) w \rightarrow \emptyset / \text{_____} u$$

(21)의 예에서는 w가 탈락하여도 재음절화가 적용되지 않아 보상장음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음절초 자음의 탈락은 재음절화에 의한 보상장음화를 유발하는 필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는 보상장음화를 유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betwuh* > *betuh* 'between'의 도출과정 (23)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23a)에 w-탈락규칙이 적용되면 (23b)에는 두음 위치에 빈자리 C가 남지만, 재음절화규칙 (20)이나 보상장음화규칙 (18)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빈자리는 미아삭제에 의해 삭제된다. 이처럼 음절초 자음탈락 자체는 보상장음화를 유발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음절초 자음이 탈락하고 재음절화규칙이 적용되어 보상장음화가 발생하는 경우와 관련된 고대영어의 h-탈락을 살펴본다. 고대영어 h는 i) 모음과 공명음

사이에서, ii) 유음과 모음 사이에서, iii)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발생하였다. 음절초 자음의 탈락과 관련하여 여기서 언급할 것은 ii)의 환경에서 발생한 h-탈락이다. 이와 관련된 고대영어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4) a. *feolhan (Go. filhan)	>	fēolan	'penetrate'
*þyrhel	>	þyrel	'aperture'
*orhaitian	>	ōrettan	'to fight'
*anhaitian	>	ōnettān	'to hurry'

b. (주격 단수)	(소유격 단수)	(주격 복수)	
ealh <sup>5)</sup>	ēales	ēalas	'temple'
eołh	ēoles	ēolas	'elk'
fearh	fēares	fēaras	'pig'
feorh	fēores	fēoras	'life'
healh	hēales	hēalas	'corner'
holh	hōles	hōlas	'hollow'
horh	hōres	hōras	'rheum'
mear	mēares	mēaras	'horse'
seal	sēales	sēalas	'willow'
seoh	sēoles	sēolas	'seal'
welh	wēale	wēalas	'foreigner'

(24b)는 명사의 격변화에서 볼 수 있는 h-탈락과 재음절화에 의한 보상장음화의 예들이다. 여기서는 편의상 세 가지 형태만을 제시하였으나, 예를 들어 *mearh* 'horse'의 격변화 아래 (25)에서 볼 수 있듯이, 주격과 대격 단수 형태를 제외하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굴절접미사(inflexional suffix)가 붙어 있는 나머지 모든 형태는 재음절화에 의한 보상장음화로 인하여 어간(stem)에 장모음을 지닌다.

(25)	(Singular)	(Plural)
Nom.	mearh	mēaras
Acc.	mearh	mēaras
Gen.	mēares	mēara
Dat.	mēare	mēar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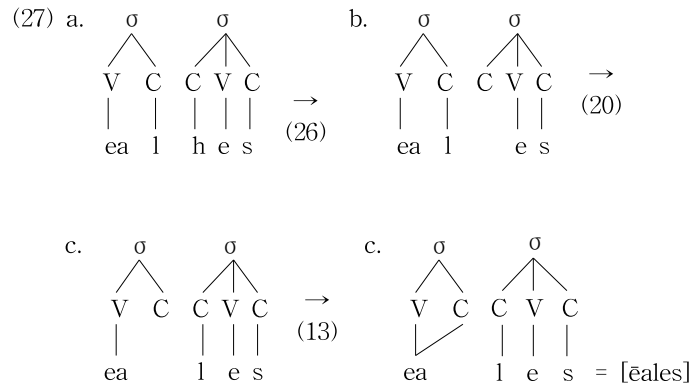
(24)의 자료와 관련된 유음과 모음 사이에서의 h-탈락을 규칙으로 나타내면 아래

5) ealh와 같은 어말 자음군에 대한 분석은 오관영(2004, p. 67-87)을 참조

와 같다.

$$(26) \quad h \rightarrow \emptyset / \left[ \begin{array}{l} -\text{syll} \\ +\text{son} \\ +\text{cons} \\ -\text{nasal} \end{array} \right] \text{ \_\_\_\_\_\_ } V$$

(24)의 예에서는 (21)의 예에서와는 달리 음절초의 자음탈락이 재음절화가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결국 보상장음화가 발생한다. h-탈락규칙 (26), 재음절화규칙 및 보상장음화규칙에 의해 (24)의 자료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알기 위해, 예를 들어 *ealht-es* > *ēales* 'temple'의 도출과정을 CV-음운론에 의해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규칙 (26)에 의해 (27a)의 h가 탈락하면 음절초에 빈자리 C가 남게 된다. (27b)에 재음절화규칙 (13)이 적용되면 이 빈자리는 1과 연결되고 본래 1과 연결되어 있던 음절말의 C는 빈자리가 된다. (27c)의 빈자리는 보상장음화규칙에 의해 그 앞에 있는 이중모음 ea와 연결되어 장이중모음을 지닌 올바른 표면형 (27d)가 도출된다. 이 도출과정은 Steriade(1982)가 제시하는 재음절화에 의한 보상장음화 도출과정 (18)이나 *wiswos* > *isos*의 도출과정 (19)과 동일하다. 도출과정 (27)과 위에서 언급한 *betwuh* > *betuh* 'between'의 도출과정 (23)을 비교해볼 때, 왜 (21)에서는 보상장음화가 발생하지 않은 반면 (24)에서는 보상장음화가 발생하였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 IV.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모음이 장음화되는 경우는 인접한 후행자음이 탈락하면 그 빈자리를 모음이 차지하는 예가 대부분이었으나 본고에서 살펴본 *ealhes* > *ēales* 'temple'에서처럼 h음이 탈락하면서 ea가 ēa로 장음화되는 현상을 잘 설명할 수가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Steriade(1982)가 제시하는 재음절화에 의한 보상장음화 과정을 소개하고, 재음절화규칙을 CV-음운론에 의해 나타낸 후, 음절초 w와 h의 탈락과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여 각각의 예를 CV-음운론에 의해 분석하였다. 재음절화규칙은 두음이 탈락한 후 적용되어 음절말에 빈자리를 남기므로 보상장음화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자료의 분석 결과 고대영어의 w-탈락은 재음절화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으므로 (21)의 예에서는 모음장음화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h-탈락은 재음절화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24)의 예에서는 보상장음화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오관영. (2004). 음절구조의 어말 자음군에 관한 분석. *영어어문교육*, 10(2), 67-87.
- Chomsky, N., & Halle, M. (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Harper and Row.
- Clements, G. N. (1982). *Compensatory lengthening: An independent mechanism of phonological change*. Distributed by the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Bloomington, Indiana.
- Clements, G. N., & Keyser, S. J. (1983). *CV phonology: A generative theory of the syllable*.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 De Chene, B. E., & Anderson, S. R. (1979). Compensatory lengthening. *Language*, 55, 505-535.
- Goldsmith, J. (1976). *Autosegmental phonology*. Doctoral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ssachusetts. Distributed by the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Bloomington, Indiana.



- Goldsmith, J. (1990). *Autosegmental and metrical phonology*. Oxford: Blackwell.
- Haas, Wim G. de. (1988). Phonological implications of skeleton and feature underspecification in Kasam. *Phonology*, 5, 237-254.
- Hayes, B. (1986a). Inalterability in CV Phonology. *Language*, 62, 321-351.
- Hayes, B. (1986b). Assimilation as spreading in Toba Batak. *Linguistic Inquiry*, 17, 467-499.
- Hayes, B. (1989). Compensatory lengthening in Moraic phonology. *Linguistic Inquiry*, 20, 253-306.
- Hyman, L. M. (1975). *Phonology: Theory and analysi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Ingria, R. (1980). Compensatory lengthening as a metrical phenomenon. *Linguistic Inquiry*, 11, 465-495.
- Kahn, D. (1976). *Syllable-based generalizations in English phonology*. New York: Academic Press. Distributed by the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Bloomington, Indiana.
- Lass, R., & Anderson, J. (1975). *Old English phon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vin, J. (1985). *A metrical theory of syllabicity*. Doctoral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ssachusetts.
- Mohanan, K. P. (1985). Syllable structure and lexical strata in English. *Phonology Year Book*, 2, 139-155.
- Sezer, E. (1986). An autosegmental analysis of compensatory lengthening in Turkish. In L. Wetzels & E. Sezer (Eds.), *Studies in compensatory lengthening* (pp. 245-246). Dordrecht: Foris.
- Steriade, D. (1982) *Greek prosodies and nature of syllabification*. Doctoral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ssachusetts.
- Wetzels, L. (1986). Phonological timing in ancient Greek. In L. Wetzels & E. Sezer (Eds.), *Studies in compensatory lengthening* (pp. 320-322). Dordrecht: Foris.
- Wetzels, L., & Sezer, E. (Eds.) (1986). *Studies in compensatory lengthening*. Dordrecht: Foris.

예시 언어(Examples in): Old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College**

이범진  
원광대학교 인문대학 영중어문학부  
570-749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Tel: (063) 850-6161  
Fax: (063) 850-7311  
E-mail: [bjlee@wonkwang.ac.kr](mailto:bjlee@wonkwang.ac.kr)

Received in Jan. 2005  
Reviewed by Feb. 2005  
Revised version received in Mar. 2005